
第111回서울特別市議會(臨時會) 建設委員會會議錄 第5號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日時 1999年3月4日(木) 午後4時

場所 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施設管理公團所管業務計劃報告의件

審査된案件

1. 施設管理公團所管業務計劃報告의件 ... 1面

(16時 30分 開議)

○委員長代理 崔榮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임시회 제5차 건설위원회를 개
의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
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李浩助
施設管理公團 理事長을 비롯한 關係任職員 여러분, 건강한 모
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번 임시회 상임위원회의 마지막날로서 시설관리
공단 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공단에 대한 평소의 애정과 관심을 적극적인 의견을 통하여
심도있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施設管理公團所管業務計劃報告의件

(16時 31分)

○委員長代理 崔榮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施設管理公團

所管 業務計劃報告의 件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그러면 먼저 李浩助 施設管理公團 理事長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施設管理公團 理事長 李浩助;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해 7월 제5대 시의회 개원 이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에 일익을 담당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새해들어 처음 맞는 제111회 임시회를 통해서 우리 공단의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지도 받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우리 사회는 크나큰 위기와 더불어 헌정사상 가장 큰 전환의 계기를 맞았으며, 국민 대통합을 통한 변화와 개혁이라는 대명제 아래 구조조정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풀어나가야 했습니다.

서울시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이같은 시련을 하루빨리 극복하고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쌓여 있는 거품을 걷어냄으로써 우리 스스로의 체질을 개선코자 조직구조 개선작업을 단행했으며, 우리 공단 역시 재창업의 정신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작업을 거쳐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우리 공단 구조조정의 관건은 조직과 인력감축을 통한 군살빼기 작업만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원 개개인의 마인드를 개혁하고 의식을 전환하는 일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최고경영진으로부터 현장직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임직원이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을

되찾아서 경영효율 제고라는 구조조정의 기본정신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구조조정이 공단의 강건한 미래를 여는 기회가 될 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아무쪼록 원만한 노사협의를 거쳐서 구조조정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올 한 해는 지난 한 세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세기를 준비해야 하는 실로 막중한 과업이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는 해로서 국민 모두가 준비하고 실천하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서울시의 기반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공조직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맡은 소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우리 사회가 당면한 시련을 앞장서서 극복함으로써 새시대를 열어가는 일에 솔선 참여해 나가리라는 다짐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우리 공단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면서 항상 우리 공단의 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리며,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공단 전 임직원은 남다른 사명감과 자부심을 살려 개혁과 재도약의 역량을 모으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노사가 서로를 이해하는 입장에서 다시금 하나되어 우리가 수행하는 업무영역에 있어서 어느 누구보다도 믿음이 가는 성실한 일꾼으로 거듭날 것을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께 다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금년에 처음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공단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幹部紹介:監事 權曰淳, 總務理事 權五虎, 管理理事 鄭炳權, 企劃調整室長 崔國永, 總務處長 鄭寅俊, 業務處長 安佑煥, 道路管理處長 金鍾徹, 監查室長職務代行 朴益淳,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濟州觀光植物園如美地管理事業所長職務代行 許南大)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崔榮壽; 理事長님, 施設理事는 언제부터 공석이지요?

○施設管理公團 理事長 李浩助; 施設理事는 전에 洪善光 理事께서 도시개발공사로 간 이후에 즉 공석인데 이번에 구조조정 과정에서 施設管理理事로 명칭이 바뀌면서 理事 한 분이 조정이 됐습니다.

○委員長代理 崔榮壽; 알았습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施設管理公團 理事長 李浩助;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구조조정 추진계획, 9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순이 되겠습니다.

.....
(報告)

施設管理公團 業務報告

(뒤에 실음)
.....

이상 내용에 의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委員長代理 崔榮壽; 施設管理公團 理事長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17時 33分 會議中止)

(17時 53分 繼續開議)

○委員長代理 崔榮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그러면 施設管理公團 理事長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즉각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으로, 답변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종료한 후에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任元彬 委員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任元彬 委員; 任元彬 委員입니다.

지난 임시회 때 질의한 것과 제16회 정기회 때 질의한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임시회 때 질의한 것은 각 공영주차장 구획수와 근무인원수의 관계가 비정상적이다, 또 공영주차장의 정규직 인원들에 대한 축탁직 거주지 위주 근무검토 여부, 또 16회 정기회 때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모두 127곳으로 78곳을 施設管理公團이 직영, 하루 이용자가 주차규모에도 못 미치는 곳이 50%가 넘고, 정규직을 제외한 하루 이용자 숫자가 주차규모에도 못 미치는 곳이 45곳으로 58%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등포지역을 보면 영등포구청 주차장 수입금이 10월 31일 현재 1억 776만 5,000원, 근무자 급여가 1억 5,410만원, 적자액이 4,633만 9,000원, 이런 곳이 많다는 것

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는 단순업무이고 외부위탁이 가능한데도 별도기구로 설치되어 있고 적자운영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또한, 영등포구청의 경우 4급지 구획수 193, 근무인원 10명, 목동의 경우는 4급지 구획수가 908, 근무인원 3명, 여의도 노외 2급지 구획수 189, 근무인원 1명, 급지 구획수에 따른 근무인원이 전혀 통일성이 없고 정규직, 촉탁직의 비율도 통일성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崔榮壽; 施設管理公團 理事長은 답변 바랍니다.

○施設管理公團 理事長 李浩助; 위원님께서 공영주차장의 구획수와 그에 따른 인력관리, 또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 경영측면에서 적자요인, 또 외부위탁 가능한 그런 곳도 저희들이 직영하는 곳, 또 목동, 여의도 등 급지 구획수에 따른 통일성이 없다 하는 그런 내용의 일반적인 사항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적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올리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구획면적에 따라서, 또 수에 따라서 저희들 필요인력을 책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주차장을 관리를 하면서 들어가는 경비와 수입 그런 내용들을 즉 분석을 하면서 가능한 경비부담에 비해 수입이 적은 것은 개방을 하고 우리 직원을 배치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일부 구획의 경우에는 너무 무질서하다거나 또 지역에 민원이 있다든가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직원을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에서 이미 지난번에

노상주차장 일부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해서, 예를 든다면 18구획 지구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했는데 1년간 세입이 한 4억원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만 민간위탁했을 때 한 30~40% 정도 증액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전반적인 주차장에 대해서 市本廳에서는 민간위탁 관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市本廳에서 민간위탁 관계를 추진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민간위탁을 시책에 반영을 시키고, 또 주차장별로 그러한 내용들이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任元彬 委員; 그렇다면 작년까지 각 공영주차장별 수입금과 급여내용, 적자운영된 곳과 정규 촉탁직 인원수에 대한 자료를 좀 보내 주시지요.

다시 묻겠는데요. 정규직, 촉탁직 근무인원에 대한 변동사항, 즉 구조조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한데 정기회 질의에서는 10월 31일 정규직 123명, 촉탁직이 148명, 11월 20일 정규직이 159명, 촉탁직이 133명이었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비교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施設管理公團 理事長 李浩助; 그것은 자료를 바로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任元彬 委員; 사실 정규직이나 촉탁직에 대한 것은 계속 구조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施設管理公團 理事長 李浩助; 그렇습니다.

○任元彬 委員; 이것을 효과적인 인력관리를 위해서도 시급한 문제인데 작년에 정기회 때 제가 질의한 바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施設管理公團 理事長 李浩助;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아까 보고 내용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당초에 민간위탁을 우리 公團 자체에서 전체적으로, 특히 시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또 그 인력관리 관계에 대해서는 이번에 구조조정할 때 반영이 되었고, 그 다음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했습니다만, 市本廳 交通管理室에서 구조조정과 별개로 전체적으로 민간위탁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고내용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서울 지역을 4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우선 금년도에 저희 公團이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을 민간위탁을 하고, 내년도에는 각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을 민간위탁을 하고, 2001년도에는 주택가까지 전부 다 구획선을 긋고 민간위탁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정책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내용들이 모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특히 요번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거품적인 그런 요소에 대해서는 모두 다 시정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었고, 그 내용을 저희들이 市本廳에 보고를 했고 行自部の 승인이 나는 대로 집행을 한다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시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任元彬 委員; 촉탁직은 몇 개월 단위로 해서 재검토되고 있습니까?

○施設管理公團 理事長 李浩助; 지금 3개월 단위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任元彬 委員; 금방 파악이 되었을 텐데 그렇게.....

○施設管理公團 理事長 李浩助; 촉탁직 관계는 지난 연말에

상당수 해고를 했습니다.

○任元彬 委員; 그러면 정규직하고 축탁직에 대해서 99년도에 임시채용한 바가 있습니까?

○施設管理公團 理事長 李浩助; 정규직은 증원한 바가 없습니다.

○任元彬 委員; 축탁직이 99년도에 채용이 되어 있습니까?

○施設管理公團 理事長 李浩助; 주차장을 3군데 신규로 交通管理室에서 조성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3군데 거기 배치하기 위해서 정규직은 기존 인력을 그대로 활용을 했고, 축탁직은 그때 그때에 따라서 3개월 단위로 준하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많이 해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인수한 3개 주차장에서 5명을 새로 위촉을 했습니다.

○任元彬 委員; 5명요?

○施設管理公團 理事長 李浩助; 네.

○任元彬 委員; 일전에 영등포 당산 6가에 지금 施設管理公團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이 양쪽으로 2군데가 있어요. 그것을 없애 달라고 제가 질의한 바가 있는데 답변이 없어요. 그것은 유명무실인데 말이에요. 거기가 지하철공사 때문에 주차장이 아무 쓸모가 없어요.

○施設管理公團 理事長 李浩助;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들 영등포 6가에는 운영하고 있는 곳이 없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任元彬 委員; 양쪽으로 2군데가 있습니다. 아무 쓸모가 없는 데에 인원을 배치한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다, 거기 양쪽 2군데란 말이에요. 평수를 보니까 한 4~5대밖에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파출소 앞쪽으로는 2~3대, 인원이 4명이란 말이에요, 교대를 한다 하더라도. 뭇하러 인원을 배치

시킵니까?

○施設管理公團 理事長 李浩助;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인지,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시정되도록 하고, 또 협조할 사항은 협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任元彬 委員; 그리고 주차요금 무인징수 문제에 대해서 계획한 바가 있습니까? 여기 업무보고 1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부정주차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수단 확보라 해가지고 견인권 부여, 바퀴 자물쇠 도입, 뭐 이런 내용인데 이게 뭘 뜻하는지?

○施設管理公團 理事長 李浩助; 이것이 아까 보고를 드렸습시다만 이번에 주차장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할 때 처음에는 민간위탁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방금 보고드린 대로 交通管理室에서 전반적으로 서울시내 전 주차장에 대해서, 또 주택가 주차장까지 앞으로 전부 다 하나 하나 시설을 정리를 해서 민간위탁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의 개요를 제가 우선 정리해서 보고드린 것입니다.

○任元彬 委員;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그것이 아니고 주차요금 무인징수 문제, 그것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 7월부터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10월에 끝내서 10월 이후부터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연 실시한 바 없습니까?

○施設管理公團 理事長 李浩助; 무인징수 관계는.....

○任元彬 委員; 여기에 파킹미터기체 도입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施設管理公團 理事長 李浩助; 파킹미터기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任元彬 委員; 안하고 있습니까?

○施設管理公團 理事長 李浩助; 네.

○任元彬 委員; 이것이 10월부터 실시가 안 됐습니까?

○施設管理公團 理事長 李浩助; 안 됐습니다. 과징미터기 관계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 이태원이라든가 여러 군데 시행을 했는데.....

○任元彬 委員; 그것은 92년도에 이미 없어졌고 그 이후에 다시 부활해서.....

○施設管理公團 理事長 李浩助; 제가 97년도인가 交通管理室長을 할 때 잠깐 했는데 그때 보니까 과징미터기를 설치하는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문제가 있어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내에서는 과징미터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任元彬 委員; 운영계획이 없다?

○施設管理公團 理事長 李浩助;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은 없는데 앞으로 市 교통관리실에서 민간위탁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과징미터기를 많이 설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계획이.....

○任元彬 委員; 언론에 그것이 나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7월에 실시해서 10월에 끝내서 10월부터 운영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었던 말이에요.

○施設管理公團 理事長 李浩助; 금년에 교통관리실에서 그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任元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崔榮壽; 任元彬 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俊明 委員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俊明 委員; 金俊明 委員입니다.

任元彬委員의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부연해서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를 보면 견인보관소 인력감소운영 13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施設管理公團 理事長 李浩助; 견인보관소 인력 13명, 저희들이 견인보관소를 여섯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정원보다 감소운영을 13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 책정된 것보다 13명을 감소운영했기 때문에 운영비가 6억원이 절감이 됐다 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金俊明 委員; 견인보관소의 현황 6개소를 보면 차량보관이 250대가 있는 데도 19명이 있고 100대가 있는 데도 15명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施設管理公團 理事長 李浩助; 위원님, 단순한 물량으로 보시면 그런 의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 일상 견인업무를 관리취급하는 인원은 보면 한 3명 내지 4명이 앉아서 민원관계를 취급하는데 그 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청소를 해야 되고, 경비를 해야 되고, 청경도 있고 야근하는 고정인력이 있다 보니까 그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조 2교대를 하고 있는데 그 인력이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관대수에 비해서, 그것을 적용시킨다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金俊明 委員; 본위원이 봤을 때는 견인료도 5km에 3만원, 지금 인원하고 견인료를 인상하겠다는 교통위원회에 보고한 적이 있지요?

○施設管理公團 理事長 李浩助; 네.

○金俊明 委員;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그야말로 수익을 내서 인원이 감축되지 않고 마인드를 개발하고 이익창출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감축이 되지 않기를 저도 바랍니다만 여기 현황에서는 너무 형편에 안 맞는 인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감축을 하고 더 이상 구조조정에서, 일반 공공근로 인원을 여기에다 확보를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인 것은 없습니까?

○施設管理公團 理事長 李浩助; 그래서 이번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많이 반영이 됐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외부 전문기관에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만 또 기존 인력 관계라든가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감안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아직도 그런 측면에서는 구조조정을 시기를 두고 더 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감소요인이 있으면 과감히 감소를 하면서 더욱 인력이 필요하다면 정규 직원을 써야 될 것을 촉탁직원을 쓴다든가, 안 그러면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쓴다든가, 또 계절적으로 인원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것도 조정을 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영측면에서 앞으로 공단간에, 공사간에 경쟁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런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그 노하우를 살려서 경비가 적게 드는 방향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俊明 委員; 견인보관소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해서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施設管理公團 理事長 李浩助; 그러겠습니다.

○金俊明 委員;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납골당시설 사업에 대해서 각 자치구, 예를 들면 중랑구청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우리 市로 올라오면 우리가 승인을 해 준다든가 법이 개정이 돼야 되겠지요?

○施設管理公團 理事長 李浩助; 네.

○金俊明 委員; 여기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나라는 아직까지 납골당이라는 인식이 잘 되지 않고 사실 홍보차원에서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망우리묘지 같은 경우에는 납골당을 건립을 하되 기존에 있는 묘들을 무료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안치를 시켜 드리고, 그야말로 망우리 공동묘지라는 개념을 떠나서 망우리 공원이란 그런 좋은 이미지를 남기도록 중랑구청에다가 사업계획을 맡기지 말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좋은 계획을 세워서 하달해서 참고적으로 사업을 구상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제시하면 어떻겠습니까?

○施設管理公團 理事長 李浩助;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저희들이 장묘문화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매장하는 문제, 또 화장을 싫어하고, 또 화장된 다음에 납골시설이 사실상 용미리에만 집중돼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시설도 허술하고 또 정서도 전통적으로 봉분의 정서가 있는데 그것과 안 맞고 하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제가 지난 8월에 수해관리를 하면서 현장에 매일 가다시피하고 성묘 때, 특히 추석 성묘때 많은 사람들이 성묘하는 현장을 아주 세밀하게 보면서 그 사람들이 느끼는, 이상한 표현입니다만 얼굴표정까지 살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왕릉식으로 만든 납골시설에 일단 한번 들어가서

납골 봉함한 내용을 보고 밖에 나와서 상석에 제물을 차려놓고 성묘를 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정서적으로 우리 봉분문화하고.....

또 왕릉에 대해서 하는 그런 것을 봤을 때 상당히 혐오적인 면도 시정이 될 것 같고, 또 정서적으로도 발전된 그런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서 왕릉식 납골묘, 또 우리 한국형 가족묘, 또 서구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벽식 납골묘, 이것을 공원식으로 연결해서 만든다면 혐오시설적인 그런 것은 시정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장묘문화의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市에 보고를 드리고 각 자치구청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중에 관계규정에서 문제되는 그런 사항들은 개정을 하도록 하고, 부지를 우선 서너 곳 정도 자치구청과 협조를 해서 확보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구청에만 맡기고, 또 市本廳의 보건복지국에만 맡길 그런 사항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 큰 조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간부들이 노력을 해서 예를 든다면 豫算課長한테 가서 설명해서 이것은 단순히 주관국에서만 이렇게 생각할 사항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예산과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하는 이런 방법으로 총체적으로, 또 도시계획국에서는 관계규정을 개정하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분야 분야별로 기여를 할 수 있는 담당들로 설명을 해서 납득을 시키고 하는 방향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저런 시설들이 혐오시설이 아닌 공원식의 납골시설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렇게 된다면 위원님께서 걱정하

시는 그런 사정들이 많이 시정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金俊明 委員; 법을 개정해서라도 망우리묘지 같은 경우에는 시범적으로 홍보차원에서 그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까?

○施設管理公團 理事長 李浩助;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용미리처럼 왕릉식 납골시설을 만들고자 설계비가 있는데 그 사항 집행을 망우리에 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를.....

○金俊明 委員; 용미리에다 하게 되면 용미리쪽에는.....

○施設管理公團 理事長 李浩助; 집중되고 있습니다.

○金俊明 委員; 집중이 돼 있고,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 서울시 근교에도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런 홍보차원에서도.....

○施設管理公團 理事長 李浩助; 그래서 제가 中浪副區廳長하고도 한 두 번을 통화를 했고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俊明 委員; 그 계획을 본위원이 구청에다가 건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올 장마철이 다가오고 우리 용미리묘지 길 도로사태 같은 것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월드컵으로 인해서 도로확장, 도로개설, 도로보수가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불편한 성묘객이나 또 용미리를 가는 차들이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2002년, 2003년에 완공을 하겠다는 것보다 월드컵과 연계해서라도 성묘객이나 모든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차질이 없도록, 또 시설관리공단의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도록 그런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施設管理公團 理事長 李浩助;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습시다만 당초에 용미리, 벽제리에 작년엔 수재가 나

고 해서 저희들은 천재라고 해서 유족관계라든가 묘지관리 관계에 대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市本廳 建設安全管理本部에서 수의계약으로 벽제리에는 현대건설이 들어가고 용미리에는 삼성물산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75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종합적으로 설계를 하고 우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전체적으로 설계를 하니까 예산이 한 250억 원 가까이 되는데 작년에 75억원하고, 금년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월드컵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경기관계의 세입이 감소되고 그런 어려움으로 해서 금년에는 예산이 28억원밖에 확보되지 못해서 완전한 항구복구에는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앞으로 그와 같은 폭우가 온다든가 그랬을 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 공사를 하도록 하고, 특히 성묘때에 이용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도로관계라든가 또 주변에 여러 가지 배수로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보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金俊明 委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에서 영세민, 장애인들이 사업을 하는데 입찰과정에서 입찰가가 너무 높고 너무 비싸다는 그런 평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민이 가야 되고 어린이가 가야 하는 대공원에 입찰가가 높아서, 물론 우리 공단의 사업은 좋습니다. 여미지 등 다른 데는 사업이 부진해서 마이너스를 보고 대공원은 입찰가가 올라가서, 물론 서울市の 세수가 올라가지만 시민이 불편하고 영세민, 장애인 등이 입찰하기가 어렵다, 이런 어떤 얘기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施設管理公團 理事長 李浩助; 그래서 저희들은 어린이대공원에 대해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시다만 종전에는 수익계약을 하다가 공개경쟁을 해서 작년까지 연간 10억원 정도밖에 안 되었습시다만, 작년말에 공개입찰해서 35억원에서 25억원 정도의 세입을 금년에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영세민, 장애인이 시설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것은 주로 자판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즉 수익계약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공개경쟁을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쟁이 붙다 보니까 10억원 정도가 35억원이 되어서 앞으로 운영면에서 바가지요금을 씌운다든지 또 너무 많은 금액을 제시를 해서 어려움을 겪는 업체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번 운영해 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이 시정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金俊明 委員; 바가지요금이 안 되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대공원처럼 여미지식물원 같은 경우도 그런 어떤 입찰이 아주 잘 될 수 있도록, 이익창출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획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짚막하게 해 주십시오.

○施設管理公團 理事長 李浩助; 사실 여미지 관계는 그 동안 제가 시간이 없어서 2시간만에 한번 갔다 오고 제가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여미지 소장이 충분히 설명을 드리는 것이 괜찮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俊明 委員; 네, 짧게 해 주세요, 이익이 많이 날 수 있는 답변으로.

○濟州觀光植物園如美地管理事業所長職務代行 許南大; 如美

地管理事業所長 許南大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 자체 매각방침이 우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수입금을 증대시켜야 되겠다 하는 입장에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미지식물원에 1개소의 임대매장이 있습니다. 3,000만원에 368만원의 월세를 받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난번 계우개발주식회사에서 2000년 5월말까지 지금 계속되어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찰관계는 2000년이 지난 그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金俊明 委員;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崔榮壽; 金俊明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理事長님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앞으로 특히 장묘문화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정책들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은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상당히 간부급 공무원인데도 이 장묘문화사업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한국형 가족묘가 있는지 조차도 모를 정도로, 그건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좋은 정책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施設管理公團 理事長 李浩助;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崔榮壽; 더 질의하실 위원님, 車元甲 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車元甲 委員; 車元甲 委員입니다.

理事長님께 묻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11월 31일자 그때 본위원이 전문성이 아닌 임명문제를 지적을 했습니

다. 앞으로는 그런 검증이 되지 않은 외부 인사는 절대로 임용을 안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제가 지적하고 난 후 며칠도 안 되어서 管理理事를 임명했습니다. 그렇지요?

○施設管理公團 理事長 李浩助; 네.

○車元甲 委員;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행정사무감사시의 지적사항을 앞으로는 그렇게 안하겠노라고 모든 위원들 앞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며칠 되지도 않아서 그렇게 임명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施設管理公團 理事長 李浩助; 위원님 걱정해 주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이나 저나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의사는 여기 앉아 계시는 鄭炳權 理事가 되겠습니다. 鄭炳權 管理理事께서는 여기 오기 전에 市議員으로 계시면서 건설위원회, 수자원관리위원회, 특히 그런 분야에서 많은 의정활동을 하셨고, 제가 또 수자원관리위원회에 있으면서도 지도를 많이 받았고, 또 개인으로서도 18년간 주택건설업을 한 경험도 있고, 또 시내 우수대학에서 지방자치 관계 6개월 과정입니다만 연구과정도 다녀서 학문적인 깊이도 넓혔고 해서 위원님께서 앞으로 지도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 施設管理公團 임원으로서 또 앞으로 施設管理公團 발전과 서울시민에 대한 충분한 시설관리를 통해서 훌륭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車元甲 委員; 그래서 임용을 하셨습니까?

○施設管理公團 理事長 李浩助; 네.

○車元甲 委員; 그러면 지금 말씀중에 건설위원으로 전 의원

직을 하셨다는 것을 중점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여기 건설위원들 전부 의원직을 그만둔 후에는 전부 관리이사, 업무이사 임용받을 수 있겠네요?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理事長님이 직원들을 생각을 하고 관리운영면에 발전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지금 많은 직원이, 아까 상당히 많은 직원이 여기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 직원들은 10년, 20년, 천직으로 알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의 사기와 의욕을 돋워주기 위해서 그분들을 이렇게 임명할 수 있도록 理事長이 앞장서서 능률도 올릴 수 있고 효율도 올릴 수 있게끔 그런 데에 앞장서서 밑의 직원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공단을 발전시키는 그런 뜻에서 그런 방법으로 임명을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위에서 4년, 3년 의원직을 했다라고 해서, 어느 사람 대학 안 나온 사람 있습니까?

또 지금 6개월 뭘 하셨다,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전부 자격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우리 理事長으로서 타당치 않은 답변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부하직원을 생각하고 공단을 생각하세요.

○施設管理公團 理事長 李浩助; 앞으로 위원님 지적사항을…….

○車元甲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얘기를 하지요. 그때 본위원이 분명히 감사하는 자리에서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의원들을 보기에, 또 본위원을 어떻게 봤기에 불과 며칠 안 되어서 임명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몇 번 이 회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해명이나 답변이나 임명한테 대해서 한 마디도 말이 없었습니다. 오늘 제가 지적을 하

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理事長님의 태도라든가 답변이라든가 모든 것이 너무나 성의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施設管理公團 理事長 李浩助;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죄송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車元甲 委員; 저희 위원님들을 너무 우롱하는 것 아닙니까?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施設管理公團 理事長 李浩助;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車元甲 委員; 다음에는 또 여기 보니까 施設理事 자리가 공석으로 있는데 이것도 이런 식으로 임명할 것입니까?

○施設管理公團 理事長 李浩助;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셨습니 다만 이번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이사 한 분이 이렇게 감원되었습니다. 그래서 施設理事 자리에서 施設管理理事로 바꾸면서 두 자리를 하나로 합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가로 임명할 그런 요인은 현재 없고, 앞으로 그런 자리가 난다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방향이 시정되도록 임명권자로서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車元甲 委員; 노력할 것이 아니라 실행을 해야 됩니다.

○施設管理公團 理事長 李浩助; 네, 실천을 하겠습니다.

○車元甲 委員; 일전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管理理事에게 묻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管理理事 鄭炳權; 管理理事 鄭炳權입니다.

○車元甲 委員; 管理理事께서는 1995년 8월 18일 제79회 임시회 때 당시 시의원직에 재직하고 있었지요?

○管理理事 鄭炳權; 네, 그렇습니다.

○車元甲 委員; 그 당시에 외부인사 영입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말씀한 것을 제가 기록을 통해서 봤습니다. 본위원은 그 기록을 보고 참 이분이야말로 정말 의욕있고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참 제가 존경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되어서 의원직이 끝난 후에 우리 管理理事께서는 말하자면 管理理事로 발탁이 되어서 임명을 받게 되었는지 말씀 좀 해 보세요.

○管理理事 鄭炳權; 답변을 드리기 전에 우선 감회가 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우리 위원님들이 앉아 계시는 그런 자리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잘못된 점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지적하고 그리고 질타했던 그런 것이 입장이 바뀌어서 施設管理公團의 管理理事로서 위원님들의 조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선,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앞으로 열심히 해서 우리 지방공기업인 施設管理公團이 제 역할을 하고 그리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할 것이며, 또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도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 8월 18일 제가 임시회를 통해서 施設管理公團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임원들이 임용되는 과정이 군출신이라든가 아니면 전혀 관계없는 정치권 출신들이 임원으로 선임이 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적해서 전문성이 없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施設管理公團에 管理理事로 이렇게 일을 하고 싶어했고, 우선 굉장히 희망을 했었

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서울시 산하에 있고, 또 제가 우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설관리공단에 관련이 있는 업무인 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그리고 제 나름대로의 발전방안에 대해서 연구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에서 꼭 한번 일을 해보고 싶다는 말씀을 우리 市長님께 드렸고, 그것을 市長님이 존중을 해서 그렇게 아마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車元甲 委員; 管理理事는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理事長께서 건설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라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말이 되지 않는 얘기를 한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管理理事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군요.

그러면 건설위원 출신은 전부가 시설관리공단의 管理理事를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건설위원을 3년 해서 管理理事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지금 管理理事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100% 다 지금 완벽하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管理理事 鄭炳權;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지금 배워야 할 점이 많고요. 그리고 또 꾸준히 현장확인을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개선해내는 이런 활동을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고 관련자료나 공기업에 대한 자세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공부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車元甲 委員;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시의원 당시에 지적

했을 때는 군출신과 회사출신 등 외부 출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삼았다,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다 하는 얘기를 하셨지요?

○管理理事 鄭炳權; 네, 그렇습니다.

○車元甲 委員; 그러면 지금 현 임명된 監事는 정치성이 농후하시고 훌륭한 분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위배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 부분도 그러면 管理理事가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監事되시는 분은 이력을 보니까 상당히 훌륭하세요. 정치성이 농후하고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그러면 아까 군출신은 여기에 맞지 않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그분도 여기에 맞지 않지요, 정치성에서. 더 큰 무대에 가서 국정을 하셔야지요. 말이 어폐있는 얘기 아닙니까, 管理理事? 답변해 보세요.

○管理理事 鄭炳權;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군출신과 정치인 출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치인 출신도 개개인의 성향을 보면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가령 저도 정치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감사업무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꼭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車元甲 委員; 제가 監事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管理理事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管理理事께서.....

○金魯珍 委員;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崔榮壽; 잠깐만요.

○車元甲 委員;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면 제가 본론에 들어가지요. 管理理事의 업무가 어린이대공원하고 여미지를 담당하고 있지요?

○管理理事 鄭炳權; 네, 그렇습니다.

○車元甲 委員; 그러면 업무계획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어린이대공원의 현재 실태가 시설이 너무 노후해서 97년도 이후 개·보수 투자가 중지되어 있다고 되어 있지요?

○管理理事 鄭炳權; 네, 그렇습니다.

○車元甲 委員; 거기에 되어 있지요?

○管理理事 鄭炳權; 네.

○車元甲 委員; 그런데 7페이지에 지금 보면 동물사 신축이라든가 해서 신축공사를 하고 있어요.

○管理理事 鄭炳權; 동물사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車元甲 委員; 하고 있지요?

○管理理事 鄭炳權; 네, 그렇습니다.

○車元甲 委員; 그런데 6페이지 앞에는 중지되었다고 되어 있고 7페이지에는 하고 있다라고 하고, 어린이대공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놀이기구 시설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노후된 것을 중지시켜 놓았다라고 6페이지에는 되어 있고 7페이지에는 공사를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보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管理理事 鄭炳權;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시설이 지금 산재해 있다고 한 것은 어린이대공원이 저희가 68년도에 인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즉 개·보수를 했고 그때 설치된 건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저희가 안전점검을 즉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노후됐다는 것 뿐이지 안전점검을 실시를 해서 사용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동물사 개선사업을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1단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시설과 우리 입장객들이 관람하는데 상당한 불편이 있어서 그것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규투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車元甲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는데 용산주차빌딩 옥탑층의 방수공사를 지금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언제 준공된 주차빌딩입니까?

○管理理事 鄭炳權; 89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車元甲 委員; 방수공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管理理事 鄭炳權; 비용이 저희가 설계서를 보니까 한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車元甲 委員; 지금 管理理事는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管理理事 鄭炳權; 그렇습니다.

○車元甲 委員; 업무를 다 파악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管理理事 鄭炳權; 그 부분은 제가 현장을 두 번이나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전년도에 일부 방수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마저 방수공사를 해서, 지금 옥상에 균열이 생겨서 비가 썰 우려가 있고 그래서 사전에 보수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車元甲 委員; 공사비가 얼마 든다구요?

○管理理事 鄭炳權; 약 5,000만원 정도의 공사비가 소요될 것입니다.

○車元甲 委員; 아무튼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실

4대때 문제를 삼던 분이, 참 비판적으로 나오던 분이 어떻게 지금 거꾸로 바로 이 자리에 나와서 管理理事를 하는지 그것이 참 문제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 하면 관리를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理事長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다시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管理理事 鄭炳權; 車委員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는 시의원 출신으로서 管理理事職을 수행함에 있어서 앞으로 성공을 해서 좋은 선례를 남기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崔榮壽; 車元甲 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任東淳 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任東淳 委員; 任東淳 委員입니다.

어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와 濟州觀光植物園如美地管理事業所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건설위원회에 보고하고 理事長은 출석요구에 대한 대책과 소신 있는 태도로 교섭단체및위원회조례규정상 시설관리공단 소관 위원회는 건설위원회 소관으로서 소신있게 거부했어야 하는데 무슨 근거로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소관부서장을 출두하게 했는지, 그리고 이어서 환경관리 업무보고에 계속적인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도 시행하겠다고 하였는데 추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施設管理公團 理事長 李浩助;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여미지식물원이라든가 어린이대공원은 업무의 뿌리가 본청 환경관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환경관리실을 지도감독하고 있는 위원회가 환경

수자원위원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여미지식물원이라든가 어린이대공원의 일반 예산관계를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관리 검토하고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대공원이라든가 여미지식물원 관계는 일반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소관을 떠나서 어느 부서의 시의원님들이라도 그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면 공식적으로 소관적인 그런 측면의 설명보다는 홍보적인 측면이라든가 이해를 구하는 그런 내용은 일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필요보다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대공원과 여미지식물원 소장으로부터 와서 배석을 해서 그 뿌리인 환경관리실에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관련되는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달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한테 보고를 해서, 전문위원회에 그런 내용 정도는 보고가 됐다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라면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참석을 시켰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또 지도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任東淳 委員;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대공원 꽃가루 비산수목 수종갱신 부분에 있어서 조치내용이 4개년계획과 연계하여 갱신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린이대공원管理事業所長 千載敬; 어린이대공원 千載敬 관리사업소장입니다.

저희 어린이대공원에 지금 꽃가루가 많이 날리고 있는 수

좋은 수양버들이 한 250주가 되고요, 그 다음에 현사시가 한 50주, 그리고 이태리포플러가 한 35주 해서 한 340주 정도가 됩니다.

이제 봄철 개화기가 되면 꽃가루가 발생해서 공원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나무를 동시에 잘라서 수종을 갱신했을 때는 이 나무들이 개월할 당시부터 심어져 있어서 20~30년 된 상당히 노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자연도태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잘라서 갱신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350주를 한번에 잘라버리면 공원의 자랑인 수목이 봄철을 빼고는 여름이나 이런 때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서울시에서 1,000만그루 나무심기의 일환으로서 理事長님께서 보고를 드렸습시다만 저희들이 율타리지역이나 이런 데에 새로운 수종을 갱신하면서 점차적으로 갱신해 나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任東淳 委員; 1년에 몇 그루 정도 계획이 되어 있는지?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저희들이 1년에 한 40주 내지 50주 정도를 잘라내려고 합니다.

○任東淳 委員;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1년에 어떻게 한다는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이러다가 4년 지나서 안 심는 것이 아닌가 해서.....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아닙니다.

○任東淳 委員; 됐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崔榮壽; 任東淳 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理事長, 아까 任東淳 委員님이 질의했던 첫번째 질

의, 우리 許南大 여미지식물원관리사업소장하고 어린이대공원 소장이 어제 환경수자원위원회에 배석했었어요?

○어린이대공원管理事業所長 千載敬; 네.

○委員長代理 崔榮壽; 아니, 여기 간사도 모르잖아요. 왜 理事長께서는 이러한 일이 있을 때는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않습니까? 언제 그러한 연락을 받았지요?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언제 배석을 해 달라는 그러한 통지가 왔을 것 아닙니까? 언제였지요?

○어린이대공원管理事業所長 千載敬; 저는 한 3일 전에 받았습시다.

○委員長代理 崔榮壽; 3일 전이면 그때 바로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했습니까?

○어린이대공원管理事業所長 千載敬; 그때 저희들은 협조가 되어서 입회만 해 달라 해서 입회하는 것으로.....

○委員長代理 崔榮壽; 입회를 하더라도 일단은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 委員長님 계시고 저 있고, 우리 專門委員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보고를 안해요?

○어린이대공원管理事業所長 千載敬;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崔榮壽; 施設管理公團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될 부분은 보고를 해야지요. 이것 자존심이 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저희보다도 우리 여미지식물원관리사업소장님이나 어린이대공원소장님은 자존심 안 상해요? 일단은 소관 상임위원회 어떠한 허락을 받고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참석을 하셔야지요. 理事長님이 보고를 해야 돼요?

○施設管理公團 理事長 李浩助; 네, 절대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죄송합니다.

○委員長代理 崔榮壽; 자꾸 구조조정하는데 있어서 시설관리이사 야까 계속 그러는데 시설관리이사가 아니고 그냥 관리이사구만. 이런 데도 구조조정하는데 한 번이라도 중간보고를 했습니까?

물론, 올해 처음으로 이것이 열리고 있습니다만 중간 중간에 우리 專門委員 있고 委員長 계시고 하니깐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협의도 해 보고, 여기 보니까 상당히 방대하구만. 내부순환도로 같은 것 엄청나게 지금 밀리고 있어요. 이것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그런데 서로 구조조정하고 인원감축하는 것이 만사가 아닙니다. 이것을 잘 좀 참고해 주시고, 적극적인 公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차제에는 절대로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理事長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施設管理公團 理事長 李浩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崔榮壽;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咸泰浩 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咸泰浩 委員; 咸泰浩 委員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지하도상가하고 관리하는 것이 있는데 인 수금액하고 유지관리비, 또 향후 계획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施設管理公團 理事長 李浩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咸泰浩 委員; 그것은 흑자인지 그것도 세세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야까 任元彬委員이 질문했을 때 민간위탁했을 때 30~40%가 증액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가요?

○施設管理公團 理事長 李浩助; 주차장을 민간위탁했을 때입니다.

○咸泰浩 委員; 그러면 위탁을 했을 때 30~40%가 증액이 된다고 그랬는데 직영을 했을 때는 적자를 많이 봤지요?

○施設管理公團 理事長 李浩助; 적자를 본 것은 없는데 위탁을 하니까, 이것은 설명을 조금 올리면 사실상 저희들은 주차장을 운영관리하는데 있어서 공공성 그런 측면 때문에 조례 규정대로만 운영을 합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그 주변의 업소하고의 관계라든가 그 시설을 세입이 되는 측면이 있으면 여러 가지 방법을 다 강구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민간인이 위탁을 하면 세입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그 시설을 본래의 목적대로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조금 벗어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처음 민간위탁을 시작했습니다만 그 운영결과를 봐서 한 30~40% 정도 세입을 올렸습니다만, 지난번에 18개소를 민간위탁을 했는데 시청앞 1개소는 반납을 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보완이 되어서 세입관계라든가 민간위탁관계가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咸泰浩 委員; 그러면 위탁을 할 때에 계약서상에 우리 조례에 준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施設管理公團 理事長 李浩助; 저희들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방향에서 예정가격을 제시를 했는데 경쟁을 하다 보니까 많이 오버되게 되어 가격이 높아졌습니다.

○咸泰浩 委員; 그러면 예정가의 몇 %나 더 증액되었습니까, 입찰가가?

○施設管理公團 理事長 李浩助; 전체적으로 한 30~40% 정

도.

○咸泰浩 委員; 예정가의 30~40%가 더 입찰가가 높았습니까?

○施設管理公團 理事長 李浩助; 네.

○咸泰浩 委員;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물론 반납을 했다는 그런 데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하는데, 사실 구조조정을 많이 해서 인원감축을 하는데 우리 公團에서도 인원감축을 해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가든지 구조조정을 당하는 사람은 일거리를 찾아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현명하게 연구를 하셔서, 속칭 국영기업체도 개인이 하면 이익이 남고 국영이 하면 손해가 난다는 얘기도 많습시다만, 그러나 운영하는 분들의 자세가 첫째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찰을 할 수 있는 위탁하는 것이나 직영하는 것이나 대동소이한 그런 수치가 나오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흑자를 보면 걱정된 운영이고 또 열심히 한다는 평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유의해서 해 주시고요.

○施設管理公團 理事長 李浩助; 네, 잘 알겠습니다.

○咸泰浩 委員; 그리고 미인수 상가가 아직 7개나 되는데 전부 7개가 다 소송중에 있습니까?

○施設管理公團 理事長 李浩助; 그렇습니다.

○咸泰浩 委員; 그 소송에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가는데 소송한 원인을 얘기를 해 주시고요. 또 그 전에도 소송이 많이 걸려서 사실 이겼지 않습니까? 먼젓번에도 소송에서 이겼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委員長代理 崔榮壽; 咸泰浩 委員님, 建設局에서 소송준비

를 다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咸泰浩 委員; 그러면 이것은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委員長代理 崔榮壽; 建設局의 협조를 받아서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施設管理公團 理事長 李浩助; 네.

○咸泰浩 委員; 그리고 여미지식물원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물론 22%가 감액이 되었는데 97년보다 전반적으로 입도객 자체가 25%가 줄고 해서 자연형태대로 보면 오는 사람이 적었으니까 수입도 줄었다, 평범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말씀을 드린다면 입도객은 줄었더라도 여미지식물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사실은 훌륭한 일을 했다고 집행부에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호에 그치지 않았더라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입도객이 줄고 그 퍼센티지 수로 입장객도 들어왔고 이익은 그 퍼센티지 비슷하게 줄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행사한 것이 효과가 없다는 그런 결론적인 얘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施設管理公團 理事長 李浩助; 위원님 지적이 행사 같은 것을 내실화해서 입도객이 줄었더라도 앞으로 입장객이 늘어서 세수가 증대되도록 하라는 그런 질책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咸泰浩 委員; 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얘기를 하셨군요. 좀 열심히 하셔서 사실 施設管理公團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업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맡아서 일을 하는데 사업성이 있는 것이니까 가능한 한 어렵더라도 사업성이 실질적으로 흑자쪽으로 있게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施設管理公團 理事長 李浩助; 네, 명심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崔榮壽; 咸泰浩 委員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金魯珍 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魯珍 委員; 金魯珍 委員입니다.

아까 전체적으로 施設管理公團 조직에 있어서 우리 車元甲委員께서 한나라당 출신의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지로 많은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혹을 갖고 있는데도 실지 어떤 주변의 여건상, 체면상 그것을 이제까지 직·간접으로 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車元甲委員이 묻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약간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理事長께서 지방공기업으로 임원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분명히 어떤 규정이 있죠? 그 규정을 어디 한번 쭉 보세요. 어떤 규정범위 내에서 어떤 것에 해당이 되어서 임원을 임용을 한다 하는 것을 그 자리에 서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施設管理公團 理事長 李浩助; 이사 임용은 정관에 의해서 市長님의 승인사항으로서 公社 社長の 추천에 의해서 市長 임명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金魯珍 委員; 그러면 監事 權曰淳 대졸 민주당 부대변인, 국민의회의 기획위원, 그 다음에 總務理事 역시 서울시 內務局長 출신이죠?

○施設管理公團 理事長 李浩助; 네.

○金魯珍 委員; 管理理事는 서울시議員 출신이죠?

○施設管理公團 理事長 李浩助; 그렇습니다.

○金魯珍 委員; 그러면 한 분은 공무원 출신이고, 두 분은 정치인 출신이라고 봐도 되겠지요?

○施設管理公團 理事長 李浩助;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金魯珍 委員; 그러면 거기에 추천을 하거나 본인이 찾아오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추천을 하신 분을 이 자리에서 못 밝히시겠지요?

○施設管理公團 理事長 李浩助; 많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金魯珍 委員; 좋습니다. 그만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이게 중앙에 있는 공기업이나 지방정부에 있는 지방 공기업들이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아주 명심하시고, 적어도 理事長이라고 그러면 서울市長이 아무리 채용에 대한 승인을 해도 理事長으로서 충분하게, 모든 것은 理事長이 권한을 갖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施設管理公團 理事長 李浩助; 네.

○金魯珍 委員; 그런 부분을 아주 각별하고 세심하게 모든 것을 하나 하나 따져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施設管理公團 理事長 李浩助; 잘 알겠습니다.

○金魯珍 委員; 전체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 우리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금년에 711억원, 작년 대비 2.2%가 증액이 됐는데 지금 한강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어떻게 해서 6개월분이 반영됐습니까?

○施設管理公團 理事長 李浩助; 그 사항관계는 지난 연말 예산심의때 우리 위원장님이라든가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

을 해 주셨습시다만 여러 가지 서울시의 시설들을 경영측면에서 관리를 강화해야 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발전적으로 생각을 해서 한강에 있는 여러 가지 위탁시설들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하나의 관계규정이 라든가 형식적인 관행에 따라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세입문제라든가 친절도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전부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걱정으로, 다만 그러한 시설들을 민간위탁을 하려면 그 동안 관리기간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6개월간의 예산만 반영하고 나머지는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민간인못지 않게 열심히 잘 관리하겠다는 그런 측면을 관계 위원회라든가, 또 예산결산위원회에 설명을 올리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오는 7월 이후에는 저희들이 철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金魯珍 委員; 그러면 지금 한강주차장은 7월 이후에는 민간위탁으로 완전히 주기로 결정이 됐습니까?

○施設管理公團 理事長 李浩助;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방향을 정한 그런 내용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魯珍 委員; 그것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실태가 오죽했으면 민간위탁을 주겠다, 예산을 더 이상 증액을 시켜주어서는 안 되겠다, 부단히 저희 건설위원회소관이 돼서 그 예산을 살리려고 애를 써봤습니다.

그러나 완강하게 환경수자원쪽의 태도들이 도저히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다 맡겨서는 안 된다, 이것은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서울시로서는 이익이다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바로 시설관리공단의 모든 시설관리 자체가 그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위원들이 이 시간에도 일일이, 업무보고 자체가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 하나 따지질 못하고 있습니다만 주차장 문제, 환승주차장 같은 경우 한번 보십시오. 환승주차장, 물론 만들어서 투자액을 비교한다면 단 몇 %에 불과하겠지요.

그러나 거기에 투입되는 인원에 비해서 지금 환승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와서 지하철로 갈아타는 그런 주차장의 효과가 돼 주어야 되는데, 인근 주변에 있는 회사 직원들의 주차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理事長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施設管理公團理事長 李浩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환승주차장은 대중교통의 근간인 지하철을 이용해서 승용차가 도심으로 들어와서 교통혼잡 요인이 되는 것을 예방하는 그런 차원으로 건설됐는데, 아시다시피 입지관계가 서울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승주차장은 그 발원이 특히 국토가 넓은 미국 같은 데나 교외에 주택이 밀집되지 않고 산재해 있는 데서 역으로 차를 가져와서 주차를 시켜 놓고 먼 거리를 지하철을 이용한다든가 하는 그런 취지인데, 저희 환승주차장은 거주지역에 밀집된 상태에서 건설된 그런 측면도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러다 보니까 인근 직장 같은 데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사항은 교통관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환승 이용목적으로 하고 있는 주차료와 인근 직장에서 이용하고 있는 주차료를 차등적용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런 목적

을 최대한도로 달성하려고 하고 있고, 시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魯珍 委員; 그 부분은 분명히 그렇게 깊어져야 될 것 같아요. 즉, 말해서 환승주차장을 우리가 지금 몇 백억원씩 들여서, 지금 강동구에 있는 천호환승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얼마 들었습니까? 600억원 정도 든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施設管理公團 理事長 李浩助; 그 정도 규모라고 알고 있습니다.

○金魯珍 委員; 600억원을 투자해서 인근 주변에 있는 백화점 직원들만이 이용을 하는 그런 사태들로, 실지 목적 자체가 환승을 하기 위해서 지하철로 갈아타기 위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 그런 점들도 잘 체크해 보시고, 차등적용을 할 수 있으면 차등적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施設管理公團 理事長 李浩助; 당초의 건축목적대로 활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魯珍 委員; 어린이대공원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육영재단에서 어린이대공원을 만들 때 너무 그때, 우리가 항상 가서 보면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나무의 수종들이 보기 흉할 정도로 활엽수, 즉 말해서 플라타너스나 포플러 이런 나무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겨울에 가서 보면 어린이대공원이 아주 볼품사납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도심에 어떤 정원으로 시켜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얼른 간단히 생각할 때 우리 집에 정원을 만들 때는 과연 내가 플라타너스나 버드나무나 그렇지 않으면 이런 볼품 없는 활엽수를 심겠느냐, 내 집에 정원을 만들 때는 그야말로

좋은 상록수로 구성을 시킬 것이다, 그러면 그 복잡한 도심 안에 어린이대공원 자체가 아주 좋은 그런 공원입니다. 그 공원 자체를 지금이라도 나무를 차근차근 수종갱신을 해 나가서 상록수로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지금 서울市長이 주도하고 있는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에, 즉 말해서 울타리를 뜯고 나무로 교체를 한다, 1,000만그루 나무 심는데 나무 수종이 무엇입니까? 理事長님 말씀해 보십시오.

○施設管理公團 理事長 李浩助; 상록수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金魯珍 委員; 지금 서울시에 금년에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에 400억원의 예산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거기에 1,000만그루 나무를 심는데 장기적으로 우리 高建 市長의 임기 동안에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나무 한 그루에 돈 2~3~4만원 가지고 상록수를 살 수 있습니까? 적어도 30~40만원씩 주어야 되는데 그것은 1,000만그루 나무심기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확실하게 예산을 별도로 확보를 해서 어린이대공원은 상록수로 점차적으로 바꾸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施設管理公團 理事長 李浩助; 그래서 업무보고때도 조금 언급해서 보고를 올렸습시다만 제가 어린이대공원을, 특히 울타리 주변을 죽 다녀보았습니다. 그래서 공지가 많이 있고 해서 1,000만그루 나무심기와 연계해서 빈 공지에 양묘장, 묘목장을 만들어서 당장 쓸모 있는 그런 나무들은 단가가 비싸서 예산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묘목장과 양묘장을 만들어서 잣나무라든가 그런 상록수를 공지 같은 데 심어서

장기적으로 바꾸면서, 또 그런 나무들이 어느 정도 자라면 조금 전에 任委員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기존 꽃가루가 날리는 묘목이라든지 플라타너스라든지 이런 수종은 그때 가서 잘라낸다고 그런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수종갱신이 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추진하도록 하고 예산이 허용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좋은 나무를 조달해서 심어가는 그런 것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金魯珍 委員; 우리 理事長님 말씀을 들으면 요즈음 공무원들이 흔히 대답하는 꼭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교체하겠다, 장기적으로 하겠다, 理事長님, 앞으로 얼마나 사실 것 같아요?

○施設管理公團 理事長 李浩助; 그래서 양묘장하고 묘목장을 관리해서 한다면 우선은 기존 서울시의 예산 사정상 앞으로 단기간에는 성목을 수종갱신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방법으로 그런 방법도 앞으로 어린이대공원을 가꾸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지금 당장이라도.....

○金魯珍 委員; 제가 그런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지금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답변을 듣고 싶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단시일 내에 예산확보를 해서 그야말로 서울도심 내에 있는 공원다운 공원으로 만들 것이냐 하는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뭘 장기간으로 해서, 지금 서울시 예산 보세요. 지금 헛되이 써지는 예산도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기 집에 정원 한 평 없는 서울에서 살면서 그나마도, 어린이대공원이 17만평입니까?

○施設管理公團 理事長 李浩助; 네.

○金魯珍 委員; 17만평 그 공원 잘 가꾸어 보세요. 그것이 어떻게 예산타령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자기 집에 정원이 있고 좋다면 서울시에서 하는 어린이 대공원 같은 공원을 의존을 않지요. 지금 현재 서울의 실정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예산타령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理事長님이 지금 확실하게 이 어린이 대공원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답변이 들려요. 어떻습니까?

○施設管理公團 理事長 李浩助; 노력하겠습니다.

○金魯珍 委員; 제가 우리 理事長이 언제까지 사실 것 같으나 이렇게 물었습니다만 그러면 만약에 가시면, 나도 가야 되니까. 가실 때는 지금 현재 화장을 하시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施設管理公團 理事長 李浩助;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더라도 그런 유명인사가 안 되기 때문에.....

○金魯珍 委員; 천만의 말씀,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아주 施設管理公團 理事長님을 유명인사로 보지, 무슨 말씀이십니까?

○施設管理公團 理事長 李浩助; 지금 현재는 그렇게 공직에 있으니까 그렇게 됩니다만 저도 임기가 끝나면 야인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관심 밖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다 해도 큰 의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업무를 맡아 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 스스로의 정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金魯珍 委員; 우리가 물론 그런 쪽 같은 경우는 참 답변을 내가 억지로 받겠다 이런 경우보다는 또 그렇게 답변을 묻는 것 자체도 제 역시도 삼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화장문화에 대해서 장례문화에 대해서 우리 서울수도 조만간에 특별위원회가 생깁니다. 장묘문화개선특별위원회가 생기는데 적어도 화장문화에 대해서 앞장을 서야 되는 施設管理公團 理事長님께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가 하고 짚막하게 우리가 견해를 물어본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시립묘지가 앞에 수해에 많은 피해를 당했습니다만 그것을 天災로 보신다고 그랬지요?

○施設管理公團 理事長 李浩助; 네.

○金魯珍 委員; 그것을 人災로 보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施設管理公團 理事長 李浩助; 유례없는 그런 폭우가 쏟아졌더라도 피해가 없도록 관리를 했어야 된다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金魯珍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인재로 전체를 인정하라고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50% 정도는 인재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그 많은 골프장 만들어서 토목공사를 했고 많은 묘지를 만들어 놓았는데 왜 다른 묘지는 가만있고 시립묘지만 무너지는 것입니까? 토목공사상 어떤 문제가 있다는 얘데요. 그러면 그것은 인재지, 천재가 아니에요.

○施設管理公團 理事長 李浩助;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사실상 조성묘지는 여러 가지 사용료 등을 조례규정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부 피해가 있었습시다만 비조성묘지보다는 피해가 적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완전히 보수를 다 했습니다. 그러나 비조성묘지는 묘지사용료를 저렴하게 받아서 당초부터 계약상 본인들이 묘지를

쓰고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입지선정 문제라든가 또 본인들이 묘지를 쓸 때 그런 폭우가 오더라도 피해가 없도록 유실되거나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지도를 철저히 한다든가 그런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金魯珍 委員; 다른 공원묘지라든가 어떤 종교단체나 또는 사설공원묘지는 그 수해에도 이상이 없었는데 서울시립묘지만이 그렇게 무너진 자체는 우리가 거꾸로 생각을 해 봅시다. 생각을 하면 내 부모의 어디 뼈 한 조각 찾을 수 없이 그렇게 얽히고 설키는 그런 수해를 당했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묘지가. 그랬을 때는 어때요? 아까 성묘 오는 성묘객들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하셨다고 했는데 뼈 한 조각 찾지 못하는 그 성묘객들이 왔을 때 공동으로 분향하는 그 표정을 봤을 때 우리 理事長님은 어떤 것을 느끼셨어요?

○施設管理公團 理事長 李浩助;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유족들이 와서 복구를 한다든가 또 유실된 시신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안내를 하고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그런 방법에서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金魯珍 委員; 참 서울시민들이 좋습니다. 저 같으면 내 조상의 뼈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되었으면 나는 理事長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서울시민들이 하도 좋은 줄 아세요. 그 분들에 대해서 금년에 2억원을 가지고 미술작품을 공모해서 만든다는데 그 이상의 더한 것도 그분들한테 해 주어

야 됩니다.

○施設管理公團 理事長 李浩助;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魯珍 委員; 그것을 명심하시고, 자치구 납골당에 대해서 우리 理事長님이 크나큰 자신감을 갖고 하시는데 항상 그런 일에서 예산만 투입이 되고 또 결과는 별로 좋지 않고, 우리가 비근하게 각구의 쓰레기 소각장 문제를 市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민원에 부딪치고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해 놓았는데 제대로 쓰지를 못하고 이런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는데 납골당 역시 그러한 문제가 상당히 유발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는 단군의 자손으로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가슴속에 안아야 됩니다. 미국은 어떠하니까 납골당이 동네 가운데 될 것이다, 또 외국을 비교해서 우리 나라 납골당의 문화가 정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멀리 서울시 밖 외곽에 있는 그야말로 묘를 쓸 수 있는 그런 산에 납골당을 만들어서 우리가 수시로 가볼 수 있는 그런 곳이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서울시 자치구에 납골당을 유치한다는 것은 대단히 주민들이 요즘 목소리가 커져 있고 그 부분은 어느 누구라도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심스럽게 추진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많은 위원들이 施設管理公團 직원들에 대해서 질의를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저녁식사시간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하도 여기 저기서 그만 끝내라고 하는 압력을 받아서 제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施設管理公團 理事長 李浩助; 납골당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조성이 되어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崔榮壽; 金魯珍 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다 하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오늘로써 상임위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하루 본회의를 끝으로 이번 제11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야간에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그 동안 야기되었던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자평합니다.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李浩助 施設管理公團 理事長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施設管理公團에서는 오늘 질의답변시 同僚委員님들의 의견을 업무추진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적어도 施設管理公團은 앞으로 이러한 부분보다도 훨씬 더 크게 많은 부분에서 관리측면에서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양 어깨가 더욱 더 무거우리라 생각되고, 앞으로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公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19時 29分 散會)

○出席委員

閔鍊植 崔榮壽 車元甲 金奇德
金魯珍 金善會 金俊明 朴洙桓
李康玉 任東淳 任元彬 鄭在天
咸泰浩 洪淳喆

○專門委員

朴勇勳

○出席公務員

施設管理公團

理事長 李浩助

管理理事 鄭炳權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濟州觀光植物園如美地管理

事業所長職務代行 許南大